

※ 박스 안에 있는 글이 학생용 교재입니다.

5과) 자연과의 공존, 평화를 부릅니다

- 공존의 시작, 남북 접경지역과 기후협력

활동에 앞서, 전체 진행자들께 주어진 지침을 아래와 함께 다시 읽어주세요.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원형 대화모임(서클 프로세스)'의 진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번개 토론과 침묵기도 등 짧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특별히 이번 과에서는 주제에 따른 질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되, 말 이외에도 오가는 기운을 느끼며 자연과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아가게 안내합니다.
- 토론 시, 무리하게 어떤 합의나 결론에 이르거나, 교훈적 메시지로 배움이 단순화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마음열기 -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 마음열기 활동은 오늘 함께 만들어갈 대화와 배움의 과정의 분위기와 방식을 제안하고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의 지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과제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되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할 경우, 화상모임 플랫폼은 'ZOOM'을 기준으로 '화면 공유', '소회의실' 기능을 확인합니다. 교육 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 기능을 파악하고 테스트해둡니다.

이제 학생용 교재에 있는 본문의 순서대로 진행해볼까요.

1. 사전에 큐알 코드를 스캔해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준비해둡니다.
2.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찬양 영상을 차분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3. 찬양을 다 들은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 밝힐 때 우리에게 건네시는 선물을 고요히 헤아려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찬양 영상을 차분한 마음으로 감상한 후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 밝힐 때 우리에게 건네신 선물을 고요히 헤아려봅니다. 헤아림이 어느 정도 끝나면, 한 사람이 다음 동작으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가슴 위에 내 것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하나 떠올려봅니다. 그 감정이 심장에서 나와서 내 팔을 타고 손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을 깎지 끼고 앞으로 밀다가 세차게 풀어버리면서 그 마음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다시 깎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쪽 밀어봅니다. 여덟을 셀 때까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어 봅니다. 더 이상의 내 필요를 넘어 탐하는 마음이 자리하지 않도록 새 숨을 심장까지 채워봅니다. 여덟을 셀 때까지 천천히 들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 여덟!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이 채워졌습니다. 천천히 눈을 떠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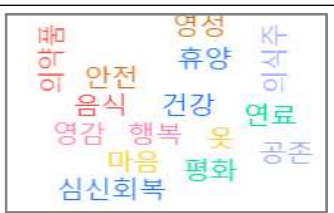
주변(창밖)에 있는 자연을 바라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자연은 어딜 봐도 그 자체로 좋은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기후 위기와 종의 멸종 때문인데,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가 중요합니다. 10년 후도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선물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선물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잠시 내 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빌1:8)이 건네 오는 말을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과 느낌,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앞으로 '9년 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누리려면?'이란 제목으로, 둘씩 번개 토론을 한 번 해볼까요? (둘이 모여 한 사람이 1분씩)

<번개 토론>이란,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각자 각자의 생각, 느낌, 이미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워밍업 과정이지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요약적으로 가볍게 나눌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발언이 1분을 넘지 않도록 안내해주시요.

2. 생각 쌓기 - 평화가 머무는 곳, 접경지역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국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분류군별 생물종목록 집도 발간되어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지속가능발전을 살피기에 가장 좋은 공간은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요 기능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인데, 좌측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풀이해 봅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단어 연결과 관련한 풀이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생물다양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다양성은 식량과 섬유, 땀감과 건축자재 등 의식주의 재료를 얻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의약품의 원료와 성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 생필품부터 안전과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아가 휴양과 여가활동 유대감, 영감의 원천 등 정신적인 측면에도 측정할 수 없는 기여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심신의 회복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생물다양성이 인간에게 주는 이러한 정신적, 영적인 혜택은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¹⁾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로 50년째입니다. 유네스코는 1971년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종으로서 생태계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인간과 생물권(MAB·Man and Biosphere)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연보전 중심의 보전지역과는 달리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고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해서는,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구역의 세 가지 용도 구역 지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어떤 곳들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을까요? 1982년 설악산이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로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에 이어, 2019년 강원생태평화 그리고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차근차근 그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강원 생태평화'와 '연천 임진강'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이라는 비전을 품은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즉 자연보전은 물론 자연의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

1) MAB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2020

지역의 경우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동으로 신청한 곳을 지정하기에,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129개국 714곳입니다(2020년 말 기준)²⁾.

이들 지역을 인간과 자연의 관점에서 새로이 바라보며 자신만의 개념으로 정리해봅시다.

인간에게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자연에게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_____ 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비무장지대(DMZ)는 남북 갈등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생태계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어느 쪽도 군사시설 및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아 수많은 동식물이 자유롭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갈등의 상황이 아직도 최상의 생태계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와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평야지대, 바다의 영향이 없는 중부 내륙지역, 태백산맥이라는 큰 지형적 영향을 받는 산악지역, 그리고 동부 해안지역 네 곳 모두가 다른 환경 속에서 뛰어난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쪽 백령도의 물범은 물론 두루미와 재두루미, 수달, 열목어 그리고 반달가슴곰까지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약 100여 종이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전쟁과 분단의 산물인 반면, 동시에 평화의 공간이자 모두가 서로를 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바로 DMZ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비무장지대(DMZ)는 전쟁의 흔적이 여전합니다. 대인지뢰를 밟아 발목을 절뚝거리는 동물들은 물론, 전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만이 아니라 1만여 명의 미수습된 참전 군인들의 슬픈 유해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아 수많은 동식물이 자유롭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어느 쪽도 군사시설 및 병력을 배치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DMZ는 남북 갈등의 상황 중에도 최상의 생태계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그리고 있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기이한 DMZ 생태공원(강현아 지음, 소동)'입니다.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니 그림책으로 살짝 들여다볼까요? 다음 QR코드를 스캔하면, 책에 관한 이야기와 책 속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이한DMZ생태공원' 북 트레일러 휴전선 등털 산양 탄피물고기 지뢰탐지 고사리 냇두리 할미꽃

어떤가요? 가보지 못한 곳, 아직은 갈 수 없는 곳 DMZ에 있을 생물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지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그들 생명과 평화로운

2)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http://unescomab.pms.or.kr/v2/main.html>

공존을 위해 만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물, 어떤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 묵상)
 남북 간의 긴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DMZ에 찾아드는 날은 올 것입니다. 언제쯤 올까요? 남북 간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고, 남과 북에 평화가 찾아드는 날, 생명과 평화의 동산 DMZ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지 참 궁금합니다. 혹여 개발의 바람이 불어서 동식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를 오히려 깨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잠시 침묵으로 기도해봅니다(3분 침묵기도).

3. 말씀 속으로 :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법

소모임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원으로 둘러앉은 상태로] 시작하면서 성경 본문을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초대하여 듣습니다. 한 사람이 낭독한 후 다음 사람이 읽을 때는 잠시 침묵이 흐르게 합니다.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 떼는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새번역, 사 11:6~9)

위 본문을 들으면, 어떤 단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본문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말에 잠시 귀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가장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를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 판단은 뒤로 하고, 충분히 상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A4용지에 그림으로 표현해봅니다. 다 그린 것은 앉아있는 자리의 중심, 원 안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 모이면, 모두 일어나서 중심에 놓인 그림을 감상하고 돌아와 아래 질문을 가지고 '지구돌봄서클³⁾'로 함께 나눔니다.

내가 상상하는,
가장 평화로운
세상 그리기

지구돌봄서클을 위해 먼저 진행자와 기록자, 시간지킴이(타임키퍼)를 정합니다. 진행자는 다음 질문을 읽어주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2~3분 정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게 합니다.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 약간의 침묵이 흐르도록 합니다. 토크스틱(Talking Stick)을 정해두고,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온전한 경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온라인에서 순서를 정해놓거나 서로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서클 질문>

1. '주의 거룩한 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그때'를 어떻게 상상하셨을까요? 이를 수 있는 날로 희망하고 있는지, 상상한 그 날의 모습과 더불어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2.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3. 인간이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 곧 평화를 깨는 인간의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고, 그 근거가 될 만한 성경말씀을 찾아봅니다.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을 깨는 폭력은 몇 가지로 설명됩니다. 생존기반을 파괴하는 폭력, 생

3) '지구돌봄서클' 진행과 관련해서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http://blog.daum.net/ecochrist>)을 통해 진행도 등 관련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명체에 대한 직접 폭력, 삶의 태도에 의한 폭력, 인간 서로 간의 불화(전쟁)이 일으키는 폭력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원인,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든지 간에 모든 폭력은, 결국 부메랑처럼 인간,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되돌아와 자연의 평화를 깨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5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에서 ‘지키다’는 보호한다는 뜻이다. 즉 돌본다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땅을 돌보는 일 : 땅 경작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레 25:1)
- 가축을 돌보는 일 :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신 25:4)
- 야생동물을 돌보는 일 : 새의 보금자리 ... 그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신 22:6)

다스린다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의 것이로다”(시 24:1)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은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한 ‘만족의’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 만물 각 개체마다 선량함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스리며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에덴에 인간을 있게 한 목적입니다(창 2:8). 인간은 일을 통해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공동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삶의 중심인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는 상호보충적 성격을 띠는데, 이는 지킴이 없는 다스림(경작)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사실 땅을 파헤치고 그 열매를 착취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주신 과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자연과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의 범죄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창 3:18) 인간은 땀흘려야 식물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창 3:19).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은 일단 한번 일어나면, 자연은 창 4:12에서와 같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수확물도 제공하려 않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사 24:4~6에서처럼 온통 혼돈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이 초래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스런 행위의 결과이었습니다.

또 창 4:11~12를 보면, 아벨의 죄 없는 피가 땅을 오염시켜 땅의 생산능력은 반감되었습니다. 카인의 죄가 생태계를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의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우리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못 땅에 성을 쌓고’(창4:16) 도시를 만든 가인을 따라,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거대화시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명의 발달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며 자연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를 전과 같이 이해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롬 1:22)라고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의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렘 5:21~22).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비참해집니다. 그들은 동산에 숨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태계 문제를 과학과 산업의 결과로만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변론의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죄는 자연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공존과 공생의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성서는 인간이 땅을 축사하고 땅을 오염시키며 착취하면 땅이 인간을 저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레 26:34을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끌려가면 너희의 땅은 썩밭이 되리라. 그동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쓰여있다. 사람이 추방당하므로 땅은 스스로 안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동물과의 평화 없이 인간 사이의 평화 또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호 2:20~25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동물(욥 40:28)과 계약을 맺으시고 창과 방패를 부러뜨려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라고 말합니다. 사 11:5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합해서 야수와 젖 먹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린 ‘평화’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어린 아이가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함께 이끌고 다니며, 독사가 휴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사 11:6~9, 65:25). 물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역사 속에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리라고 믿는 것(짐승을 길들이는 데 대한 왜곡된 해석을 제외하고는) 또한 유토피아적 망상일지도 모릅니다. ‘평화로운 왕국’이란 결국 궁극적인 이상이거나 종말론적인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곧 풍요로운 평화의 동산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평화자’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남북한 식물비교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휴전선으로 완전 분리된 채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자연을 봐도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식물들이 다른 이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 지역의 식물 3,523종이 담긴 ‘조선식물지’와 우리나라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국가생물종목록을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50%인 1,773종의 식물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작약울 함박꽃으로, 라일락은 큰꽃정향나무로, 쥐똥나무는 검정알나무로, 리기다소나무는 세잎소나무로, 양버즘나무는 방울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⁴⁾ 남북으로 갈라진 땅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라는 이들 식물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중임에도, 자연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아서일까요, 자신의 윤희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윤희도 존중하고 지켜주는 공존, 지극히 작은 생명까지도 배려한다면, 우리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삶 속으로 : 일상에서 자연과 평화에 이르는 길

우리는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개성공단 등 남북 경험, 남북 공동체전은 물론, 남북 생태계를 연결하는 남북 산림협력 등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해왔습니다. 요즘엔 DMZ과 그 인근 접경지역에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반도 평화생명동산을 만드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연결이 끊어진 자리,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평화는 실현됩니다. 국가 간, 민족 간, 지역 간, 교회 간은 말할 것도 없고, 70여 년을 갈라진 상태로 지내고 있는 남과 북도 만남을 반복해서 연습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로 평화에 이르는 꿈을 꾸면서, 에스겔 37장 16~17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

4)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econ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에서 확인

어봅니다. 70여 년을 한반도에서 남과 북으로 갈리어 대치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6~17)

겔 37장 16~17절의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는 70여 년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남과 북을 어떤 것으로 연결할지 생각해봅니다. 어떤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특히 지금은 전 세계가 기후 재난으로 심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북쪽에 덮치면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에 닥칠 기후 재난은 어떻게 닦쳐올까요? 남북한에 예상되는 피해를 예상해보고 그 차이를 생각해봅니다. 혹 남북한이 직면하게 될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따로 또 같이 해결해갈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남북한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활용하여 협력함으로써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봅니다.

기후 재난이 왔을 때, 남북한이 따로 또 같이 겪게 될 피해를 적어본 후, 어디서 오는 차이인지 이야기 해봅니다.

기후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한이 기후협력사업을 전개한다면, 서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남북 간의 기후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북한은 자연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증가와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로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남한은 자연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 뿐 아니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국방 예산 규모도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낮으며, 해마다 재해로 타격을 받고 절대적 에너지 부족과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막대기로, 나(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들고 나가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을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봅니다.

협력 내용	우리(공동체, 학교, 직장, 교회)	도시, 국가
-------	---------------------	--------

한반도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한반도 숲(생태계)		
한반도 교류 거점 공간		

우리가 남북 간에 탄소중립을 이루며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만을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며 이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만을 이웃으로 여기며 돌보고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생태위기가 이야기되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새와 다람쥐, 나무와 바람, 물과 공기, 흙, 따스한 햇살 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요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적 맥락에서 우리는 빈곤의 피해자이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희생양이 된 자연을 이웃으로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연 사랑은 보편화 된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과 마찬가지로 자연도 인간중심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무참히 죽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하마 인디언 부족들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웃에게 신고식을 거행합니다. 처음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굽어 살피 주시옵소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어 그 첫 고개를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는 바람과 구름과 비와 안개들에게 아기를 소개한다. 그 다음에는 산과 계곡, 강과 호수, 나무와 풀들에게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공중을 나는 크고 작은 새들이여, 숲 속에 사는 크고 작은 짐승이여, 풀 사이를 지나며 땅 속에 굴을 파는 모든 곤충들이여, 모두 내 말을 들으소서. 새로운 생명을 굽어 살피사 그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아기가 네 고개를 잘 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예식은 150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존재해온 모든 우주의 이웃들, 그리고 45억 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존재해온 모든 지구의 이웃들, 그리고 최근에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유기적 생물체와 모든 인간의 이웃들과 정중한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의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웃으로서의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이 폭력으로 희생되는 동물적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당신의 생명을 먹이로 내줌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새로운 창조세계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생태학적 의미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어리석음(고전 1:18)에 따라 비폭력과 봉사의 자세로 뜻 생명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자연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길일 테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함께 우리 또한 파괴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요즘 대다수가 행복하지도 평화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에서 수동

적 소비자로 살거나, 그 소비를 위해 창조의 기쁨을 박탈당한 채 살아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런 사회와 이를 지탱하는 사회적 폭력의 구조에 의문을 갖고 저항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제와 나눔의 삶,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삶,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 휴과 농촌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자연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먼저 깨달은 이들이 평화로운 사회를 향해 허위의 풍요로움을 버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끈질기게 살아낸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어두운 것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날의 평화를 위해,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연습해봅시다. 오늘 단 하루만큼이라도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맞춰 자신이 '하지 않을 것(Don't)과 할 것(Do), 그리고 나눌 것(Share)'을 약속해 봅시다.

- Don't : 나는 자연과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안 한다.
- Do : 나는 자연과의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한다.
- Share : 나는 자연과의 인간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을 나눈다.

수업을 마치며, 가능한 대로 일상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미션을 일상에서나 별도로 시간을 내어 해볼 것을 권면합니다.

추가미션>

DMZ, 접경지역 걸기기도

공과 후 가능한 대로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걸기 기도를 드립니다. DMZ 접경지역을 찾아가 걸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책하기 좋은 숲(물)길이어도 좋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닿아 있는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 사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바람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떠올리며, 그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봅시다.

- 걸을 때는 홀로 걷더라도 함께 걷는다는 마음으로,
- 걸기 전에 다음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엡 2:14)
 - 걸을 때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걸음에 '주님', 또 한걸음에 '평화'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걷습니다.
 - 그리고 다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등하고 있을지라도 서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돌보아 주옵소서.”